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3년 6월 4일 (제2035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신심 단체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탈출기 34,47-6.8-9

화답송 다니 3,52-56.53.54.55.56(◎ 52-56)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13,11-13

복음환호송 묵시 1,8 참조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3,16-18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 성가 ]	8시	입당 81	봉헌 340	성체 156	파견 83		
	11시	입당 80	봉헌 220	성체 156, 186	파견 201		
삼위 일체 대축일	6월 04일(일)		6월 06일(화)	6월 07일(수)	6월 08일(목)	6월 09일(금)	6월 10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김미숙 말가리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사목회
독서	정기환 레안델 이선미 에스터	설재훈 스테파노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이선미 에스터	윤춘주 세레나	허홍숙 세실리아

■ **봉성체**

- 6월 7일: 실버구역, 6월 7일: 버클리재활센터,
- 6월 9일: 유니언재활센터

■ **회의 및 모임**

- 구역장 회의: 6/4(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사 목 회 의: 6/4(일), 오후 2시, 교육관 106호
- 꾸리아 회의: 6월 10일(토), 오전 9시
- 꾸르실료 여성14차 봉사자모임: 6/11(일) 오후3시,교육관 106호
- 샌리엔드로 구역: 6/11(일) 교육관 106호
- 라모린다/라스모어 구역: 6/10(토) 오후 1시 Rossmoor Picnic Area sport's man Park
- 오클랜드 구역: 6/18(일)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트 구역: 6/18(일) 교육관 107호
- 리치몬드/버클리 구역: 6/24(토) 오후 3시  
조진행 바실리오 닥

■ **성경 통독** : 6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38,1 - 40,30)

■ **공동체 기도 지향**

송성관 토마스, 한서연 수산나, 박영자 마리아, 신선아 헬레나,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찰)

■ **성 김대건 한국학교 23-24년도 학생 모집**

- 문의: 유홍식 라파엘 교감, [standrewkimks@gmail.com](mailto:standrewkimks@gmail.com),  
919-259-9383

■ **본당 수입/지출 현황**

- 5월 본당 재정 보고
- 23년 1월~5월 수입/지출 누적

\*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첫 액세서리 교실은 6월 17일(토)

■ **오늘 헤어컷 봉사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일 밥나눔 봉사해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온전한 고유성과 온전한 자유를 지니면서도 한 분으로 행동하신다는 가르침이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때,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겉으로만 가족일 뿐 사실상 개개인의 집합에 불과할 것이고, 반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집안일을 결정하고 가족들은 따라주기만을 강요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결정 속에 서로를 배려하며 가족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가족은 한마음을 지닌 참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일상과 연결될 수 있다. 한 신학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고유한 분이시나 항상 사랑으로 하나되어 한 뜻을 이루시기에 서로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하느님 모습이 부부, 부모자녀, 사회 안에서 구현될 때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 사회의 모습에 직결되는 소중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 쉽게 풀어쓰는 기도 이야기: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의 은총을 더 쉽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춰서 하느님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객관적인 내용, 곧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계시하신) 내용 그대로를 알아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들이 모여서 하느님에 대해서 고심하고 합의해서 '우리의 하느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정하자!'라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계시 종교, 계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지의 차원에서 하느님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알아들으려는 노력은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서 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올바르게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인지의 차원에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느님이시라면 '참된' 하느님이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느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라를 알고 계시죠? 주로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이의 부활을 대비해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처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후에 미라의 상태로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미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한 박물관에서 '미라 특별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가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겠죠. 그래서 어느 주일 시간을 내 박물관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실제 미라가 여러 구 전시돼 있고 각각의 미라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라들을 관람하다 보니 박물관이 문 닫을 시간이 됩니다. 아직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미라에 대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박물관을 나섭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간 이 사람의 삶에 전날 봤던 미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라를 실제로 보게 된 경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실제로 미라를 봤다는 흥미로움, 뿌듯함은 며칠 더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운 것 말고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더 '참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 미사에 참례하면서 전례 말씀과 강론을 듣고 하느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러한 공부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아,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아는 인지의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적으로 하느님 속성이 어떻고 성경이 쓰인 역사적 배경이 어떤지를 알게 되더라도 그러한 지식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주일 하루는 성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지만,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느님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요?

그 하느님은 아직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하느님, 내 삶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하느님이실 것입니다.

### 하느님을 믿으시나요? 신앙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충분하냐 부족하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 내 삶에서 어느 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을 참되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느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결국, 정서의 차원이고 사랑의 영역입니다. 사랑을 여러 의미로 풀어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모습은 어떤 대상, 그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데 힘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말 좋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 대상을 향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쏟는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느님도 물론 계시 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몇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가요?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

(출처: [가톨릭신문, 2018년 5월 6일, 민범식 신부])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6명		179명		225명			
하느님의 자비주일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박민진(1-12), 임윤택(5), 이덕용(5), 조진행(6), 이영길(4), 김원덕(6), 조우송(6-7), 천종욱(5), 김상윤(5-6), 정수영(1-5), 박호영(6), 추혜성(1-6), 조덕행(5-6), 이선희(3-5), 김학철(5-6), 이육경(5)					이덕용 이선희		임윤택, 이덕용, 이선희	이육경	익명 이육경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6/4(일)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6/4(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백하영 테일러	김관속크리스티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 /아네스		생	크리스티다 페리	김엘리사벳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네스가족		생	명만희 모니카	민제노베파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Seo Moon 가정	김영선 안젤라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김아레 카타리나	향심기도회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문병수님 건강	김영선 안젤라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생	본당 봉사자	임유지 비비안나
	연	김형준 시몬	김영미 클라라		생	임석호 분도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주임 신부님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주임 신부님	김문환 베드로
	연	정미카엘	가족				
	연	김마르코	가족				
	연	최순일 요셉	가족	6/6(화)	연	최정자 잼마	이동대 안토니오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최순일 요셉	김문환 베드로		생	한현자 헬레나	임유지 비비안나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주임 신부님	김문환 베드로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6/7(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생	주임 신부님	김문환 베드로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연	김화순 안나	김정임 마리안나	6/8(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관속 크리스티나	전 수산나		연	김재성 제이슨	김 커넛가족
	연	김관속 크리스티나	소화옥 안나		생	주임 신부님	김문환 베드로
	연	김관속 크리스티나	류삼수				
	연	김관속 크리스티나	홍토마스 아퀴나스	6/9(금)	생	주임 신부님	김문환 베드로
	연	김재성 제이슨	김커네스가족				
	연	이건용 요셉	임유지 비비안나	6/10(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채다니엘	채토마스/줄리		연	전아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최복동	원광희 프란치스코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성령기도회 활성화	성령기도회
					생	주임 신부님	김문환 베드로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박사 이준                  침·한약·제중조절·통증조절·제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p>J &amp;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요한</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	--	--	---	--